

## 합성명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sup>1)</sup> — 멜축 형태론의 관점에서 —

박 만 규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 1. 문제의 제기

우리말에서 합성명사는 구성어휘의 분포가 고정되어 있고 의미해석도 매우 불투명한 유형에서부터 구성어휘의 분포가 열려 있으며 의미해석도 매우 투명한 유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유형에 속하는 형태들은 특별한 이론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형태론적 구성인지 아니면 통사적 구성인자, 즉 단어인가 아니면 구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1) 본 논문은 박만규(2005)를 크게 보완한 것이다. 발표 때 논평을 맡아서 소중한 충고를 해주셨던 채현식 선생님과 논문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주 제 어: 합성, 투명, 합성성, 합성어, 복합어, 합성명사, 복합명사.  
compound, transparency, compositionality, compound word, complex word, compound noun, complex noun.

- ㄱ. 합성명사는 의미가 불투명한가 혹은 투명한가? 합성명사로 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가 불투명해야 하는가? (혹은 의미가 비합성적이어야 하는가?)
- ㄴ. 만일 의미가 투명한(혹은 합성적인) 형태도 합성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면 합성명사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 ㄷ. 투명성(혹은 합성성)과 불투명성(혹은 비합성성)은 이항대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양한 중간적 유형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위범주화 될 수 있을까?
- ㄹ. 합성명사에서 관찰되는 이 같은 의미조합의 유형들은 통사적 구성들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인가, 아니면 동일한 것들인가?
- ㅁ. 100% 생산성을 가지는 구성, 다시 말해 화자가 자유롭게 구성하여 쓸 수 있는 어휘결합은 합성명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가?
- ㅂ. 만일 이들을 합성명사로 인정할 수 있다면, 합성명사를 통사적 구성, 즉 구 syntagmes와 구분시켜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우리는 특히 멜츨(I. Mel'čuk)의 형태론 연구에 제시된 개념들을 상당 부분 원용할 것이다. 이는 멜츨의 의미-텍스트 이론(Théorie Sens-Texte) 틀 내에서 합성명사 문제를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그 이론체계 내의 형태론 부문에 제시된 개념들이 매우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고 상당한 정도의 조작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합성명사의 제 문제들을 다룰 때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멜츨의 개념들을 단순히 한국어에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비판하면서 다소간 수정, 보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에 개념이 분명치 않거나, 우리말에 적용할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N-N형 합성명사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것은 이 형태가 합성명사 논의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들을 보자.

(1)

- ㄱ. 조기 퇴직, 강경 투쟁, 임시 수업, 장기 관리, 특별 관리, 공정 거래, 공정 경쟁
- ㄴ. 흡혈 동물, 흡혈 생물, 흡혈 인간
- ㄷ. 관리 철저, 주의 당부
- ㄹ. 복제 인간, 복제 세포, 복제 개, 복제 테이프
- ㅁ. 담당 연구원의 외국 치료 사례 조사 분석

(2)

- ㄱ. 설탕공장, 김치공장, 자동차공장, 가죽공장, 의류공장, 종이공장(제지공장)
- ㄴ. 생선가게, 과일가게, 옷가게, 신발가게, 그릇가게
- ㄷ. 빵집, 밥집, 라면집, 술집, 고깃집
- ㄹ.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 ㅁ. 간이 화장실, 간이 침대, 간이 학교, 간이 시설
- ㅂ. 가죽옷, 가죽치마, 명주치마, 면바지; 흙집, 돌집, 벽돌집, 나무집, 통나무집, 초가집, 기와집; 나무배, 종이배
- ㅅ. 법정 관리
- ㅇ. 공놀이, 공기놀이, 카드놀이, 병정놀이, 병원놀이

(3)

- ㄱ. 논밭, 밤낮(=밤과 낮),<sup>2)</sup> 봄가을, 부모자식, 형제자매, 엄마아빠, 아들딸, 신사숙녀, 신랑신부, 시집장가, 피땀<sup>3)</sup>
- ㄴ. 책걸상, 행복행, 잘잘못

2) 예 (6)의 ㄴ.에 제시한 ‘밤낮’ 과는 의미가 구분됨.

3) ‘피와 땀’의 뜻으로 쓰인 경우를 말함, ‘피가 섞인 땀’이라는 의미일 때는 관형관계를 표현한다. (김창섭 2005)

(4)

- ㄱ. 벼락부자, 황소고집
- ㄴ. 복부인, 달동네
- ㄷ. 윗사람, 아랫사람
- ㄹ. 몸집, 몸살, 밥벌레
- ㅁ.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5)

- ㄱ. 배꼽티, 목티
- ㄴ. 독길, 논길, 발길, 눈길 등꽃길, 하꽃길, 출근길, 퇴근길, 학교길 밤길, 새벽길
- ㄷ. 고깃배, 나뭇배

(6)

- ㄱ. 두꺼비집, 치맛바람
- ㄴ. 바지저고리, 집안, 밤낮(=늘상)

위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합성명사인가? 합성(영 compound, 불 composition)이란 흔히 둘 이상의 어근(racines)이 결합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 예들이 합성명사 범주에 편입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다. 다만 문제는 이들이 어떤 근거에서 '단어'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일인데, 이것이 개개의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의외로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합성명사의 지위를 판정할 때 의미해석의 불투명성(opacité)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즉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불투명한 의미해석이 나올 때 합성명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시경(1910=1986)<sup>4)</sup> 이래, 최현배(1937=1987),<sup>5)</sup> 이희승(1977)<sup>6)</sup>을 거쳐, 양영

---

4) 합성어의 예로 든 '물불'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물'과 '불'의 합성이 아닌

희(1994),<sup>7)</sup> 이석주(1989),<sup>8)</sup> 서정수(1990) 등 대부분의 합성명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정곤(1990)은 형태적 합성어와 의미적 합성어로 구분하고, 전자는 어근이 둘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후자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예들은 이 같은 의미의 불투명성 기준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의미해석이 비교적 불투명한 (5)와 거의 완전히 불투명한 (6)의 예들을 제외하면, (2)와 (4)의 예들은 꽤 투명하게 보이며, 특히 (1)과 (3)의 것들은 (거의) 완전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sup>9)</sup>이다. 예컨대, (3)과 (4)의 예들과 달리, (1)과 (2)의 예들은, 함께 결합하는 형태의 분포적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 한, 화자가 구성해 쓸 수 있는 것들로 보인다. (1)~(3)에 제시된 ‘조기 퇴직’의 경우, ‘조기’와 ‘퇴직’을 결합시켜 만든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에’와 ‘퇴직하다’를 결합하여 ‘조기에 퇴직하다’라는 통사적 구성체와 평행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기’는 ‘이른 시기에’라는 의미의 어

로운 의미를 가지는 반면, ‘모시옷’은 ‘모시’를 재료로 한 ‘옷’이라는 점에서 두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합성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주시경 1986: 115)

- 5) 녹은 겹씨(융합합성어)를 최현배(1937=1987: 687)는 “둘이나 둘 더되는 씨가 서로 겹하되, 아주 녹아 어울리어서 각각 본대의 뜻을 잃어버리고, 한 덩어리의 새 뜻을 나타내는 겹씨”라고 정의하고 있다.
- 6) 이희승(1977: 251)은 복합어의 성분이 되는 단어의 원의(原意)나 원형(原形)이 변하는 것을 새로운 한 단어로서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7) 합성어란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고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형식이다.(양영희 1994: 50)
- 8) 이석주(1989: 46)는, 합성어를 의미가 특수화하여 단일개념을 나타내는 두 어기로 구성된 단어로 정의한다.
- 9) 이는 필자의 용어이고,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간략히 ‘구성가능성’이라 하겠다.

근으로, 다음에서 보듯이, 모든 행위명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1') 조기\_N: ~경보, ~교육, ~검거, ~소탕, ~졸업, ~이수, ~유학, ~진단, ~퇴진, etc.

이는 부사 '조기에'가 의미론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행위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1'') 조기에 V: ~경보하다, ~교육하다, ~검거하다, ~소탕하다, ~졸업하다, ~이수하다, ~유학하다, ~진단하다, ~퇴진하다, etc.

이처럼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은 '강경 투쟁', '입시 수업' 등 (1)의 모든 예에서 관찰되며, 뿐만 아니라 (2)의 모든 예에서도 관찰된다.

그런데 이 같은 구성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통사론적 구성이 가지는 특성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형태론적 구성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구성가능성을 보이는 부류들에 대해 합성명사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부여한다면 합성명사 내에 두 하위부류(투명성과 구성가능성을 보이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일반적인 합성명사와 통사적 구성의 중간 범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형태론적 구성과 통사론적 구성의 구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명하고 구성가능한 부류들을 통사적 구성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10) '명예퇴직'은 최근 실시되고 있는 특정한 제도를 가리키므로 이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4) 부류에 속한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전자의 입장, 즉 위의 예들을 모두 합성명사로 인정 하되 (1)-(2)의 형태들과 (3)-(6)의 형태들을 하위구분 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뉘축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1)-(6)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하위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합성명사의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아우르는 속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위에 제시한 (1)~(6)의 예들에 대해 의미조합의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모두에서 지적인 대로, 그리고 위의 예들에서 확인한 대로 합성성과 비합성성은 이항대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양한 중간적 유형들이 있는데, 이들의 의미조합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사적 구성들의 의미조합 양상과 대조할 것이다. 그 결과, 합성명사에서 관찰되는 의미조합의 유형들이 통사적 구성들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인가를 확인함으로써 합성명사의 정체성 확인에 한 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예들에서 관찰되는 의미조합의 양상은 통사적 구성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이 아니다. 이로 인해 의미조합의 방식만을 고려해서는 합성명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과 (3)에 제시된 모든 명사들을 완전히 합성적인 경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뉘축의 의미론적 의미(signification sémantique)와 통사론적 의미(signification syntaxique)의 대립개념을 원용할 것이다.

이처럼 의미 조합 방식만으로는 합성명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합성명사의 정체성을 통사적 속성들에서 찾을 것이다. 기간 연구에서 제안된 음운론적 특성, 내적 분리 불가능성 등에 더해서, 우리는 뉘축이 제시하는 통사적 응집력(cohésion syntaxique) 기준 가운데 특히 조응적 섬(îlot anaphorique) 기준이 우리말에도 잘 적용됨을 보일 것이고, 아울러 뉘축의 가설로부터 유추한 한정사 제약 또한 제시할 것이다.

## 2. 두 종류의 합성어

### 2.1. 멜축의 합성어1과 합성어2

우선 합성이란 무엇인지 멜축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자. 그의 정의도 일반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7) 합성(composition)<sup>11)</sup>

합성이란 하나의 동일한 어간(radical)<sup>12)</sup> 안에 둘 이상의 어근(racines)을 연합하는 조작을 말한다. 합성어란 그 조작의 결과이다. (M4: 90)

멜축은 불투명성이나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 등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7)과 같은 형태론적 조작만을 고려하여 합성을 정의함으로써, (1)~(6)의 모든 예들이 합성명사 범주에 포괄될 수 있게 했다. 다만 문제는 구와의 구분이며, 그 기준만 분명히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그는 합성의 범주를 둘로 하위범주화 하는데, 그것은 강한 의미의 합성(composition au sens fort) 혹은 합성어1(composé 1)과 약한 의미의 합성(composition au sens faible) 혹은 합성어2(composé 2)이다.

강한 의미의 합성을 통해 구성된 어휘소인 합성어휘소1(lexème composé 1)은 발화과정에서 화자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다. 즉 100% 생산적이고 투명하다. 이 점에서 공시적(synchrone) 합성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

11) 여기서의 ‘합성’은 ‘composition’(영: compound)이다. 의미론적 개념인 합성(성), 합성적은 ‘compositionnalité’, ‘compositionnel’의 번역어로서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들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즉 형태론적 개념인 ‘합성’, ‘합성어’와 의미론적 개념인 ‘합성’, ‘합성적’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용어들인 것이다. 다만 한국어 번역어들이 같아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12) 어간은 한 형태-단어에서 굴절접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M4: 82)



에, 약한 의미의 합성을 통해 구성된 합성어휘소2(*lexème composé 2*)는 담화 상에서 개별 화자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전체로 저장되고 재현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통시적(*diachronique*) 합성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다 소간 숙어화된(*phraséologisé*)<sup>13)</sup> 합성어에 해당한다.(M4: 87)

이제 위의 예를 보고 설명해 보자. 우리의 판단으로, (1)과 (2)의 형태들은 합성어휘소1(간략히 ‘합성어1’)에 해당하며, (3)~(6)의 것들은 합성어휘소2(간략히 ‘합성어2’)에 해당한다. 우선 (1)과 (2)의 합성어들은 화자가 담화 상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에 (3)~(6)의 것들은 화자가 담화 상에서 만들어 쓰지 못하는 것들이다.<sup>14)</sup>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 두고자 하는데, 그것은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이 실제로 화자가 발화시에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전자는 언어(*langue*), 즉 기능(*fonction*)으로서의 개념인 반면에, 후자는 언어활동(*langage*)으로서의 개념으로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즉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은 규칙에 의한 결합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 발화 시에 화자가 구성하여 쓰겠지만, 자주 출현하는 어떤 연쇄들은 하나의 등재소로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에 저장되어 있다가 선택될 것이다. 예컨대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머릿속 사전에 저장되어 있겠지만, 아마도 ‘바오밥나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뿔족은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에 기초한 합성1과 합성2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기능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8) 강한 의미의 합성어 (합성1):

어휘소 L은, 만일 그것의 어기 R(L)이 둘 이상의 어근 R1, R2 ..., 등과

13) 뿔족은 어휘화(*lexicalisation*)의 의미로 ‘숙어화’(*phraséologisation*)라는 말을 쓰고 있다.

14) 논쟁적인 예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메타조작  $\oplus$ ,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른 기호와의 교체(alternances)<sup>15)</sup>로 표상될 수(représentable)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때만 강한 의미의 합성 또는 합성1이라 불린다.(M4: 88)

(9) 약한 의미의 합성 (합성2):

어휘소 L은, 만일 그것의 어기 R(L)이 둘 이상의 어근 R1, R2 ..., 등과 메타조작  $\oplus$ 로 기표(signifiant)에 있어 준표상적(quasi-représentable)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때만 약한 의미의 합성 또는 합성2라 불린다.(M4: 90)

여기서 표상될 수 있다(représentable)는 것과 준표상적(quasi-représentable)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한다. 우선 표상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언어기호 X가 다음과 같이 다른 언어기호들의 언어학적 연합(métopération)으로 표상될 수 있으면, 그리고 오직 그 때만 X는 표상가능하다고(représentable) 한다.

언어학적 연합은  $\oplus$ 로 표시하므로 이를 다시 공식으로 표현하면 'X = X<sub>1</sub>  $\oplus$  X<sub>2</sub>  $\oplus$  ...  $\oplus$  X<sub>n</sub>' 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말의 '도우니'는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11) i) '도우니' = 돕  $\oplus$  으니  $\oplus$  비  $\Rightarrow$  우

ii) /비/  $\Rightarrow$  /우/ | 1) /비/  $\in$  비변칙동사의 어간, 2) /으/

i)의 '비  $\Rightarrow$  우'는 교체(alternance), 즉 형태음운규칙인 비변칙이 일어남을

15) 형태(morphe)의 기표의 일부를 교체하는 조작을 말하는데, 모음교체(apophonie, 예: 프랑스어의 je meurs, nous mouorons) 같은 대체(remplacement), 그리고 후부절사(troncation), 어간모음(voyelle thématique) 따위의 삽입 등을 말하는 것이다.

표현한다. ii)는 어간이  $\nu$ 변칙 동사의 어간에 속하며 ‘으’가 후행한다는 조건이 만족되면 / $\nu$ /을 /우/로 교체함을 말한다. 물론 이 부분은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규범형(formes canoniques)만으로 간략히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11') \text{ '도우니' = 돕 } \oplus \text{ 으니}$$

즉, ‘도우니’는 ‘돕’과 ‘으니’의 언어학적 연합으로 표상가능한 기호라 할 수 있다. 다른 기호들과 언어학적 연합으로 표상가능하다는 것은 아직 그 기호가 기초적 단위,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어떤 기호가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다면 표상가능성이 없게 되고 따라서 기초 기호(signe élémentaire), 즉 단일어(mot simple)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적 개념인 ‘준표상적’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기호가 기표(signifiant)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기호와 언어학적 연합으로 표상가능하지만 기의(signifié)에 있어서는 표상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기표에 있어 준표상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속어라 하는 복합표현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이다. 예컨대 ‘비행기를 태우다’라는 기표는 ‘비행기  $\oplus$  를  $\oplus$  태우  $\oplus$  다’로 표상할 수 있지만 ‘칭찬하다’라는 기의는 표상가능성이 없다. 반대의 경우는 ‘기의에 있어 준표상적’인데, 영어의 ‘is’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is’는 기의가 ‘be,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로 표상할 수 있지만 기표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멜축은 합성어<sup>1</sup>을 진정한 합성어라 한다. 왜냐하면 두 어근을 공시적(synchronique)으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합성어<sup>2</sup>는 통시적 합성어일 뿐이어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분해할 수 없는 단일 기호인 것이다. 반면에 합성어<sup>1</sup>(이하 ‘공시적 합성어’)은 기초적 기호들의 자유 결합체(complexes libres de signes élémentaires)로 분석된다.

## 2.2. 구분의 문제점

이제 공시적 합성어와 통시적 합성어의 구분을 우리의 예들에 적용해 보자. 과연 멜축의 정의 (8)대로 공시적 합성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어근들이 언어학적으로 연합한 것으로 표상된다. 예를 들어 (1)의 ‘조기 퇴직’ 과 (2)의 ‘설탕 공장’ 은 다음과 같이 표상될 수 있다.

- (12) ㄱ. ‘조기퇴직’ = 조기 ⊕ 퇴직  
 ㄴ. ‘설탕공장’ = 설탕 ⊕ 공장

반면에 (4)의 ‘벼락부자’, (5)의 ‘배꼽티’, (6)의 ‘두꺼비집’ 은 각각의 기의가 다소간 불투명하여 (9)에 따라 기표에 있어 준표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 ‘논밭’ 같은 경우는 ‘논과 밭’ 이라는 뜻이므로 표상적이라 할 수 있을텐데, 과연 이것을 화자에 의해 구성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가 비록 매우 투명하나, 그 형태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밭논’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논의하겠지만, 통시적 합성어로 볼 수 있는 (5)의 예들도 준표상적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담화 상에서 화자가 만들어 쓸 수 있는 성격의 유무로 출발한 개념이 표상성/준표상성으로 정의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멜축 자신도 두 유형의 합성어의 구분이 자주 흐릿해진다고(*souvent estompé*) 말하고 있듯이 그 구분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M4: 88)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멜축의 이러한 하위분류는 합성명사의 의미구조를 모두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과 (2) 사이에도 투명성(보다 정확히는 ‘합성성’<sup>16)</sup>)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3), (4), (5), (6) 각각도 마찬가지로 상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미구조에 대한 더욱 세밀한 분석이 요구

된다 하겠다. 다음에서 합성명사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 합성명사의 의미 분석

국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합성어의 의미적 분류는 최현배(1937 = 1987: 688)로부터 비롯된 다음의 것이다.

- (13) ㄱ. 별린 겹씨(병렬복사):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인 의미를 유지하는 합성어.  
 ㄴ. 가진 겹씨(유속복사): 한 구성요소의 의미가 다른 구성요소의 의미에 종속되는 합성어.  
 ㄷ. 녹은 겹씨(융합복사): 각 구성요소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

이희승(1955: 254~255)의 ‘병립’, ‘주종’, ‘혼일’도 동일한 내용의 분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들은 분류의 축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13)ㄴ.은 구성요소 간의 위계에 기반하고 있으나 (13)ㄱ.과 ㄷ.은 의미의 전이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sup>17)</sup> 여기서 우리는 Mel'čuk(1995)가 제시하는 합성성(compositionalité)의 개념을 이용하여 합성명사의 의미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16)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17) 시정곤(1994)에서는 융합복합어를 합성성의 원리를 벗어나므로 복합어가 아닌 관용어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는 단어와 구절 층위를 구분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 3.1. 뭉툭의 합성성 개념에 의한 의미 분석

우리는 흔히 ‘투명성’과 ‘불투명성’이라는 개념에 기대어 어휘의 의미를 분석한다. 예컨대 (1)과 (2)의 예들은 모두 의미적으로도 투명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 구성요소들의 축어적 의미(literal sense)와 복합표현이 가지는 의미해석 사이의 관계가 유연적(motivated)이거나 무연적(unmotivated)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성문법 식으로 말하면, 생성이 아니라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의미와 텍스트의 다대다 대응과정을 모델화하는 뭉툭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델(Modèle Sens-Texte, MST)의 관점에서는 텍스트에서 의미로 가는 대응관계 상에서 문제 삼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문장이나 복합어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는 청자의 언어적 지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등 다소 불분명한 개념이 된다. 사실 (4)와 (5), 심지어 (6)의 합성어들도 모두 어느 정도는 유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뭉툭은 그 반대의 개념, 즉 화자가 메시지를 산출하는 과정, 다시 말해 의미에서 텍스트로 가는 대응관계 상에서 접근하는 ‘합성성’/‘비합성성’의 개념에 더욱 의지한다. 여기서 합성성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뭉툭에 있어 의미의 ‘합성성’이란 비제한적(unrestricted)이고 규칙적(regular)인 의미적 연합(union)을 말한다.<sup>18)</sup> 여기서 ‘비제한성’은 다른 등가적 의미로 교체가 가능함을 말하고 ‘규칙성’은 그 언어의 규칙적 의미조합(regular union of signifieds)임을 말한다. 보통 ‘자유표현(free phrases)’이라고 일컬어지는 복합표현은 구성 어휘의 기의들이 비제한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연합된 것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 같은 표현이 그러한데, 우선 ‘밥’의 기의인 (밥)<sup>19)</sup> 대신에 유의적인 (주식)이 쓰이고 ‘먹다’의 기의인 (먹다)가

18) 뭉툭에게 ‘합성성’은 기의뿐 아니라 기표에도 적용되는 비제한적(unrestricted)이고 규칙적(regular)인 언어적 연합(linguistic union)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기의 간의 연합이므로 여기에 한정하여 논의를 한다.

(섭취하다)로 대체되어도 의미가 여전히 등가적이므로 비제약적 연합이다. 그리고 두 기의가 조합될 때 우리말의 일반적인 조합으로 충분하며 다른 특별한 요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적 의미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밥을 먹다’는 완전히 합성적인 연쇄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자유표현은 통사적 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표현이 된다.<sup>20)</sup>

다음으로 ‘고함을 치다’ 같은 표현을 보면, (고함) 대신에 유의적인 (큰 소리)가 쓰일 수는 있으나 (치다)가 (때리다)로 대체되면 더 이상 의미가 등가적이지 않으므로 비제약적 연합이라 할 수 없다.<sup>21)</sup> 그리고 두 기의가 조합될 때 우리말의 일반적인 의미조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규칙적 의미조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함을 치다’는 합성적인 연쇄라 할 수 없다. 이처럼 비합성적 조합에 의해 형성된 복합표현을 멜축은 숙어소(phrasèmes)라 부른다. 그런데 비합성적 조합은 다시 세 종류의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 유형(I 유형)은 방금 언급한 ‘고함을 치다’와 같은 경우로서, 한 구성요소의 의미는 유지되지만 다른 하나의 의미는 유지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숙어소 AB의 의미 (X)가, 한 구성요소 A의 의미((A))와 다른 구성요소 B가 표현하는 ((A)에 부수적인) 의미 (C)로 구성된다. 이런 유형의 비합성성은 반숙어소(semi-phrasèmes) 혹은 연어(collocations)를 특징짓는다.

두 번째 유형(II 유형)은 복합표현의 기의가 구성 어휘소들의 기의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새로운 기의를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숙어소 AB가 (C)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C)가 (A)도, (B)도 포함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19) 언어 기호 X의 의미를 (X)로 적는다.

20) In a free phrase, the signified, the signifier, and the syntactics are constructed exclusively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s of the language; a free phrase is thus 100% compositional and replaceable by any other sufficiently synonymous phrase. (Mel'čuk 1995: 176)

21) ‘큰 소리를 치다’가 ‘호언장담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그러한 해석은 제외한다.

(C)  $\not\subset$  (A), (C)  $\not\subset$  (B)인 경우이다. 이런 방식의 의미조합은 완전 숙어소 (phrasèmes complets) 혹은 관용구(idioms)를 특징짓는다. 예를 들면, ‘도마에 오르다’는 구성 어휘들의 어떤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 ‘비판의 대상이 되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sup>22)</sup>

셋째 유형(III 유형)은 복합표현의 기의가 구성 어휘소들의 기의를 모두 포함하나 이들 이외의 다른 기의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숙어소 AB가 (A), (B)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의미 성분 (C)를 추가적으로 더 가지는 경우, 즉 AB가 (ABC)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된다. 이런 방식의 의미조합으로 실현된 숙어소를 뿔쭈은 준숙어소(quasi-phrasèmes) 혹은 준관용구(quasi-idioms)<sup>23)</sup>라고 부른다.<sup>24)</sup> 예를 들어, ‘눈을 의심하다’는 ‘눈으로 본 것을 의심하다’를 뜻하는데, ‘눈’과 ‘의심하다’ 외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2. 합성성 개념에 의한 합성명사의 의미 분석

우리는 지금까지 뿔쭈의 합성성 개념에 의거해서, 통사적 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조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1)~(6)의 합성명사들이 어떻게 의미를 조합하는지 분석해 보기로 하자.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성명사의 의미조합이 통사적 구성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검토해 보

22) 연어와 관용표현이 통사적 구성인가 하고 의심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사적 구성이 가지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 구성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함을 치다’의 경우 ‘고함을 (크게 + 툇하면+철수에게+...) 치다’, ‘도마에 오르다’의 경우 ‘도마에 (자주 + 툇하면 + 한 번 + ...) 오르다’에서처럼 다른 어휘요소에 의해 분리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23) 박만규(2003)에서는 이를 ‘의사관용표현’이라 칭했다.

24) 이상 Mel'čuk(1995: 177-178), 이병근, 박진호(2000: 182), 박만규(2003)에서 재인용.



고, 그 결과 합성명사만의 고유한 의미조합 방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6)의 예들을 보자.

- (6') ㄱ. 두꺼비집 = (일정 크기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녹아서 전류를 차단하는 휴즈가 내장된 안전장치)  
 치맛바람 = (여자의 극성스러운 활동)  
 ㄴ. 바지저고리 = (무능력자), 집안 = (친척), 밤낮<sup>25)</sup> = (항상)<sup>26)</sup>

이들은 우측에 제시한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성어휘들의 기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합성성이 전혀 없는 II 유형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즉 통사적 구성의 완전 속어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미를 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조합을 '완전비합성'이라 칭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합성어를 '완전비합성적 합성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5)의 예들을 살펴보자.

- (5')
- ㄱ. 배꼽티 = (배꼽까지 못 내려가 배꼽을 드러내는 티)  
 목티 = (목까지 올라가 목을 가리는 티)<sup>27)</sup>  
 ㄴ. 독길 = (독에 난 길), 논길 = (논에 난 길), 밭길 = (밭에 난 길), 눈길 = (눈(위)에 난 길)  
 등곶길 = (등교할 때 다니는 길), 하곶길 = (하교할 때 다니는 길),  
 출근길 = (출근할 때 다니는 길), 퇴근길 = (퇴근할 때 다니는 길),  
 학교길 = (학교 다닐 때 다니는 길)  
 밤길 = (밤에 걷는 길), 새벽길 = (새벽에 걷는 길)

25) 여기서의 '밤낮'의 용법을 (3)의 '밤과 낮'과 '항상'으로 나누었다.

26) ㄴ.은 박홍근(1981)의 예들이다.

27) 김창섭(2001)의 정의.

ㄷ. 고깃배 = (고기를 잡을 때 타는 배), 나뭇배 = (나무를 실어나를 때 쓰는 배)

우선 ㄱ.에서 ‘배꼽티’의 의미는 ‘배꼽’의 의미와 ‘티’의 의미가 모두 의미 구성에 참여하나 이 두 의미만으로는 전체 기호의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 즉 ‘x까지 못 내려가 x를 드러내는 y’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배꼽티’의 의미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방식으로, 즉 ‘배꼽’ (= x)의 의미와 ‘티’의 의미(= y)와 ‘x까지 못 내려가 x를 드러내는 y’라는 의미를 더하여 복합표현 전체의 의미를 조합하는 방식은 우리말에서 ‘배꼽티’ 이외에 다른 예를 찾을 수 없다. ‘목티’의 경우도 ‘목’과 ‘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x까지 올라가 x를 가리는 y’라는 의미가 더해져 전체 복합표현의 의미를 합성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의 의미조합도 ‘배꼽티’가 유일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두 합성명사의 의미는 우리말의 규칙적 의미조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로, 통사적 구성의 III 유형, 즉 복합표현의 기의가 구성 어휘소들의 기의를 모두 포함하나 이들 이외의 다른 기의를 포함하는 준속어소와 동일한 방식의 의미조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조합을 ‘준합성’이라 칭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합성어를 ‘준합성적 합성어’라 하기로 한다.

ㄴ.의 예들도 마찬가지다. ‘독길’과 ‘논길’ 등은 (… 에 난 …)의 의미를, ‘등곳길’, ‘하곳길’ 등은 (… 할 때 다니는 …)의 뜻을 구성어휘들의 의미에 덧붙이고 있다. ‘밤길’과 ‘새벽길’은 = (… 에 걷는 …)을 부가하고 있다.

ㄷ.의 ‘고깃배’와 ‘나뭇배’도 각각 (… 를 잡을 때 타는 …)와 (… 를 실어나를 때 쓰는 …)라는 의미를 덧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합성명사를 조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표현하는 기호들을 결합시키고 보조적 개념들의 기호들은 생략시키면서 조어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관찰된다.<sup>28)</sup>

28) ㄴ.의 일부 구성의 경우, 일견 화자에 의해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등곳길’, ‘출근길’로부터 ‘조깅길’, ‘순찰길’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

이제 (4)의 예들을 보자.

(4')

- ㄱ. 벼락부자 = (갑자기 된 부자)  
황소고집 = (몹시 센 고집)<sup>29)</sup>
- ㄴ. 복부인 =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꾀하는 가정부인),  
달동네 = (산등성이나 산비탈 따위의 높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sup>30)</sup>:
- ㄷ. 위사람 =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사람),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  
아랫사람 =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
- ㄹ. 몸집 = (몸의 부피), 몸살 = (몸이 아픈 것), 밥벌레 = (밥만 먹는 사람)<sup>31)</sup>
- ㅁ. 큰아버지 = (아버지의 형)  
작은아버지 = (아버지의 남동생)

이들은 모두, 한 구성어휘의 의미는 유지되지만 다른 구성어휘의 의미는 유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미를 조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I 유형의 속어소, 즉 통사적 구성의 반속어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미를 조합하고 있는

---

나, ‘운동길’, ‘쇼핑길’은 불가능하며, ‘배달길’은 어색하다. 또 ‘밤길’, ‘새벽길’로부터 ‘낮길’과 ‘아침길’, ‘오전길’, ‘오후길’ 등을 유도할 수 없는 것을 보면 분포의 제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즉 공시적 합성어가 아니라 통사적 합성어로 판단된다.

- 29) ㄱ,은 양영희(1994: 59)가 부분합성어로 분류하는 것으로, 한 구성성분의 의미가 변한 다음 그 변화된 추상적 의미가 지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분과 결합하여 의미의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 30) 성광수(1988: 71)에서는 ‘복’, ‘달’의 해석에 수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인 융합복합어에 분류한다.
- 31) 박홍근(1981)의 예들.

것이다. ㄱ.~ㄷ.의 예들은 앞 성분이 비유적으로 쓰인 경우이고, ㄹ.의 예들은 뒷 성분이 비유적으로 쓰인 경우이며, ㅁ.은 앞 성분이 비유적으로 쓰였으나 오히려 의미의 핵이 되는 경우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조합을 '반합성'이라 칭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합성어를 '반합성적 합성어'라 칭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3)을 제외하고 통시적 합성어에 속하는 합성명사들의 의미조합 방식을 살펴보았다.((3)의 분석은 3.2.의 후반부에 제시함) 이제는 공시적 합성어에 속하는 예들을 살펴보자. (2)의 합성명사들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 ㄱ. 설탕공장 = (설탕을 만드는 공장), 김치공장 = (김치를 만드는 공장), 자동차공장 =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가죽공장 = (김치를 만드는 공장) ...
- ㄴ. 생선가게 = (생선을 파는 가게), 과일가게 = (과일을 파는 가게) ...
- ㄷ. 빵집 = (빵을 파는 가게), 밥집 = (밥을 파는 가게), 라면집 = (라면을 파는 가게) ...
- ㄹ. 사과나무 = (사과가 열매로 열리는 나무), 사과나무 = (사과가 열매로 열리는 나무) ...
- ㅁ. 간이화장실 = (간이로 만들어 쓰는 화장실), 간이침대 = (간이로 만들어 쓰는 침대) ...
- ㅂ. 가죽옷 = (가죽으로 만든 옷) ...; 흙집 = (흙으로 만든 집) ...; 나무배 = (나무로 만든 배) ...
- ㅅ. 법정 관리 =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리하다) ...
- ㅇ. 공놀이 = (공을 이용하는 놀이) ...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제시된 합성명사들의 의미는 통사적 구성의 III 유형, 즉 복합표현의 기의가 구성 어휘소들의 기의를 모두 포함하나

이들 이외의 다른 기의를 포함하는 준속어소와 동일한 방식의 의미조합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5)의 준합성적 합성명사들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이들은, 화자가 직접 구성해서 쓸 수 있는 형태들이라는 점에서 (5)유형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1) 유형과 다른 점이다. 예컨대, ㄹ의 모든 나무 이름이 ‘-나무’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 가운데는 ‘회양목’과 ‘플라타너스’ 등이 있다. 기표가 기의에 대응되는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규칙적이거나, 기의가 기표에 대응되는 합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기호의 기의와 기표의 대응관계는 Saussure가 말한 대로 여전히 자의적(arbitraire)인 것이다.

또 ㄴ의 ‘N 가게’의 형식에도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학용품가게’ 대신에 ‘문방구’가 쓰이며, ‘액자가게’, ‘표구가게’ 대신에 ‘표구사’가, ‘술가게’ 대신에 ‘주류점’이 쓰이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학용품가게’, ‘액자가게’, ‘표구가게’ 등이 불가능한 구성은 아니다. 다만 잘 쓰이지 않을 뿐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류가 되는 것이다.

ㄷ의 ‘N 집’에서 ‘집’은 음식점을 뜻한다. 모든 음식 명사를 N 위치에 받아들이는 것 같다.<sup>32)</sup> 예를 들어, ‘피자집’, ‘닭집’, ‘생태찌개집’, ‘삼겹살집’처럼 말이다. 한편 ‘집’이, ‘꽃집’, ‘담배집’ 등에서처럼, ‘가게’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ㄴ의 예에 적용해 보면 가능한 연쇄가 되나, ‘생선집’, ‘과일집’, ‘옷집’, ‘신발집’, ‘그릇집’처럼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형태들이 된다. 그러나 ‘전자제품집’, ‘컴퓨터집’ 등처럼

32) 이 때 ‘집’은 다의어로서 ‘음식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저 집은 뭐가 맛있나?’, ‘그 집은 주방장이 바뀌었어.’, ‘지난 번 그 집으로 가자.’ 등에서 ‘음식집’의 의미가 폭넓게 확인되고 있다. 한 가지 더 부연할 것은, ‘중국집’은 중국음식을 파는 가게를 뜻하므로 통시적 합성어에 속한다는 점이다. ‘일본집’, ‘불란서집’ 등이 불가능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대적 상품이 분포되면 어울리지 않는다.

한편 (1)의 예들은 어떠한가? 편의상 ㄱ.~ㄴ.의 첫 예들만 의미를 제시해 보자.

(1')

- ㄱ. 조기 퇴직 = (조기에 퇴직하다)
- ㄴ. 흡혈 동물 = (흡혈하는 동물)
- ㄷ. 관리 철저 = (관리를 철저히 하다)
- ㄹ. 복제 인간 = (복제된 인간)
- ㅁ. 담당 연구원의 외국 치료 사례 조사 분석=담당 연구원이 (외국에서 치료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다)

우선 ㄱ.의 예를 보면 어근 ‘조기’의 의미와 ‘퇴직’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 (예)(즉 조사의 의미)와 (하다)(즉 동사화접미사의 의미)가 덧붙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예)와 (하다)가 전체 의미의 구성요소로서 참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만일 이들이 전체 의미의 구성요소로 판단된다면, ‘조기 퇴직’은 자체 구성요소 외에 (예)와 (하다)의 의미를 덧붙임으로 해서 준합성적 방식으로 의미를 조합한다는, 즉 비합성적으로 의미를 조합한다는 말이 되고, 만일 전체 의미의 구성요소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완전합성적으로 의미를 조합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질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데는 멜추의 의미론적 의미(signification sémantique)와 통사론적 의미(signification syntaxique)의 대립 개념이 매우 유용하게 보인다.

멜추는 기호의 의미를 의미론적 의미(혹은 의미소 sémantème)와 통사론적 의미로 구분한다. 어떤 언어기호의 의미가 그것이 사용된 문장의 의미표상(représentation sémantique)에 참여하면 의미론적 의미라고 하고, 단지 단어를 연결하는 통사적 관계만을 나타낸다면 통사론적 의미라 한다.<sup>33)</sup> 문장의 의미 표상에는 술어와 그 논항들만이 나타나게 된다. 통사론적 의미는 인간이 사용

하는 언어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요구된다. 인간은 선조적으로, 즉 시간 축 상에서밖에 발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의미와 달리, 통사론적 의미는 언어마다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Paul loves Mary.' 라는 문장과 'Mary loves Paul.' 이라는 문장은 어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반대이다. 그것은 Paul, Mary, love, -s가 가지는 의미론적 의미만으로는 전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Paul과 Mary를 love에 대해 연결하는 의미, 즉 통사론적 의미가 더해져 전체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한국어의 경우엔, '이' / '가', '을' / '를' 등과 같은 격조사의 의미가 이 같은 통사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하다', '-게' 따위의 파생접사 등이 이 같은 통사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기', '-(으)ㄴ', '-ㄴ', '-르', '-아/어', '-게', '-지', '-고' 따위의 전성어미들도 그러하다. 이들은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33) 원문의 제시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의미표상(représentation sémantique)의 일부에 직접 대응되면 그리고 오직 그때만 '의미론적 의미' 또는 '의미소'라고 한다.

Une signification est appelée *signification sémantique*, ou *sémantème*, si et seulement si elle correspond directement à un fragment de la représentation sémantique.(M1: 324)

나) 문장 내에서 두 형태-단어를 연결하는 통사적 관계에 대응하면 그리고 오직 그때만 '통사론적 의미' 또는 '통사소'라 한다.

Une signification est appelée *signification syntaxique*, ou *syntaxème*, si et seulement si elle ne correspond qu'à une (ou plusieurs) relation(s) syntaxique(s) liant deux mots-formes dans une phrase.(M1: 325)

34) 형태소(morphème)를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단위로 할 때, 이 '의미'에 통사론적 의미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이 시옷은 하나의 형태소라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벨축은 형태소를 기초적 분절 기호(signe segmental élémentaire)라고 정의한다(M5: 35). 여기서 '기초적'이라 함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음을 뜻한다.

ㄱ.의 '조기 퇴직'의 의미인 (조기에 퇴직하다)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예)와 (하다)의 의미가 전체 의미의 조합에 구성요소로서 참여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의미론적 의미가 아닌 통사론적 의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조기 퇴직'의 의미는 술어 (퇴직)과 여기에 적용되는 2차 술어 (조기)가 조합되어 이미 완성되고, (예)와 (하다)는 한국어의 통사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두 술어를 연결시키기 위해 부착되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복합표현의 의미조합에 구성요소로는 참여하지 않는 의미성분이다. 실제로 '조기 퇴직'이라는 형식에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없이 (조기에 퇴직하다)라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조기 퇴직'은 구성 어휘의 의미로만 조합된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100% 합성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즉 통사적 구성의 자유표현과 마찬가지로 구성어휘들의 의미가 비제약적이고 규칙적으로 조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ㄴ.의 '흡혈 동물'의 의미가 포함하는 (하다)와 (는)도 각각 동사화와 관형화라는 통사론적 의미를 표현한다. ㄷ.의 '관리 철저'에서 (를), (히), (하다)도 각각 목적격, 부사화, 동사화라는 통사론적 의미를 나타낸다. ㄹ.의 '복제 인간'에서 (되다)와 (ㄴ)도 각각 피동화와 관형화라는 통사론적 의미를 표현한다. 피동이란 태(voix) 범주의 한 요소이다. 태는 문장 전체의 명제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사논항들 배열하는 조작이라는 점에서, 통사론적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태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게 실현된다는 점이다. 즉 N1-N2의 구조에서 N1이 피동의 의미뿐 아니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예컨대 '복제 기계'에서는 '복제'가 능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중의성이 있을 수 있다. '고용인'의 경우, '고용'이 능동을 나타낼 수도 있고 피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물론 한자로 쓸 경우에는 구분할 수 있지만 말이다. 雇用人일 경우 '고용주'를 의미하고, 雇傭人일 경우 '피고용인'을 의미한다.<sup>35)</sup>

35) '교육자/피교육자', '보험자/피보험자', '정복자/피정복민', '지배자/피지배



마지막으로, ㄹ의 합성명사는 매우 많은 어휘들이 결합하는 합성명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이 같은 예는 합성명사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많은 명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사례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우리의 판단으로, ㄱ~ㄴ의 예와 전혀 다르지 않다. 즉 ㄹ의 예도, ㄱ~ㄴ의 예와 동일하게, 의미론적 의미에 통사론적 의미가 결합되어 전체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 어휘의 의미들이 비제약적이고 규칙적으로 조합되고 있다. 따라서 통사적 구성의 자유표현이 의미를 조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1)의 합성명사들은 100% 합성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조합을 ‘완전합성’이라 칭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합성어를 ‘완전합성적 합성어’라 칭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우리가 사용한 ‘완전비합성’, ‘준합성성’, ‘반합성성’, ‘완전합성성’ 등의 용어는 필자가 만든 것이다. 그것은, 뭇축이 완전합성적 의미조합 방식과 비합성적인 세 방식에 대해 용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비합성적 합성어’, ‘준합성적 합성어’, ‘반합성적 합성어’, ‘완전합성적 합성어’ 등의 용어도 필자가 만든 것인데, 이것은, 뭇축이 이상의 네 가지 의미조합 방식들을 통사적 구성과 형태론적 구성(즉 합성어)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자유표현, 준속어소(준관용표현), 반속어소(연어), 완전속어소와 같은 용어들은 통사적 구성뿐 아니라 형태론적 구성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 같은 용어들은 일반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별도로, 형태론적 구성에만 적용될 수 있는 ‘완전비합성적 합성어’, ‘준합성적 합성어’, ‘반합성적 합성어’, ‘완전합성적 합성어’ 등을 만든 것이다.

이제 (3)의 예들을 보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되므로, 몇 가지 예에 대해서만 정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

자’에서처럼 접두사 ‘피(被)’를 써서 구분하면 중의성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인용지수/피인용지수’에서는 사실상 대립이 중화된다.

(3')

- ㄱ. 눈밭 = (눈과 밭), 밤낮 = (밤과 낮),<sup>36)</sup> 봄가을 = (봄과 가을), 부모  
자식 = (부모와 자식)
- ㄴ. 책길상 = (책상과 길상), 행복행 = (행복과 불행)

여기에 열거된 예들은 소위 병렬합성어(최현배의 ‘병렬복사’)로서, 많은 학자들이 의미가 투명하다는 이유로, 즉 제3의 의미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합성어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 유형은 그 의미가 완전 합성적이다. 두 어근의 의미소가 그대로 합성에 참여하고 이들이 등위접속이라는 의미에 의해 연결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등위접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론적 의미인가 통사론적 의미인가? 두 형태를 선조적으로 접속하는 데 필요한 의미이므로 통사론적 의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어의 경우 대응되는 형태소가 없음을 볼 때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3)의 형태들은 공시적 합성어인가 통시적 합성어인가? 후자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바대로 순서가 고정되어 있고, 또 모든 ‘N-와 N’의 구를 이처럼 N-N 형태로 만들어 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밤과 낮’ 으로부터 ‘낮밤’을 조어할 수 없으며, ‘축구와 야구’로부터 ‘축구야구’의 형태를 조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분류	소분류	의미조합 방식	평행한 통사적 구성
공시적 합성명사	(1) 완전합성적 합성명사	AB = (AB)	자유표현
	(2) 준합성적 합성명사	AB = (ABC)	준속어소
통시적 합성명사	(3) 완전합성적 합성명사	AB = (AB)	자유표현
	(4) 반합성적 합성명사	AB = (AC) 또는 (CB)	반속어소
	(5) 준합성적 합성명사	AB = (ABC)	준속어소
	(6) 완전비합성적 합성명사	AB = (C), (C) ⊄ (A), (C) ⊄ (B)	완전속어소

36) (늘상)을 뜻할 때는 형태론적 완전속어소에 해당함.

흔히 공시적 합성명사는 (완전)합성적으로 구성되고, 통시적 합성명사는 비합성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공시적 합성명사에 (비합성적 조합방식의 하나인) 준합성적 합성명사 부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성분만을 표현하고 일반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다른 의미성분들을 생략하는 준합성적 방식이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을 이루는 것은 보다 더 면밀한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주어진 합성명사에서 어떤 의미성분들이 예측 가능하여 생략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5) 유형의 통시적 합성명사들에 있어서는 똑같이 준합성적 의미조합을 이용함에도 화자 구성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더 심화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둘째는, 통시적 합성명사에도 완전합성적 의미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명사 부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합성적으로 의미들을 조합한다 하더라도 어떤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배열에 제약이 가해져 굳어진 경우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기호의 근본적인 자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하나의 어근이 항상 같은 유형의 합성을 하는 것은 아님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예를 들어 형태(morphe) '자동'은 다음에서 보듯이 두 가지 종류의 합성어를 구성한다.

i) 완전합성적 공시적 합성명사: (자동(적으로)): '자동 계산', '자동 세탁', '자동 이체', '자동 응답기', '현금 자동 지급기', '자동 발사 장치', '자동 개폐 장치', '자동 조절 기능'.

ii) 준합성적 통시적 합성명사: '자동 소총' =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여러 발을 발사하는 소총), '자동 카메라', '자동문'

지금까지 (1)~(6)의 합성명사들에 대해 의미구조를 분석한 결과, 합성명사의 의미조합 방식은 통사적 구성들이 취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음을 보였다.

즉 합성명사만의 고유한 의미조합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합성명사의 정체성은 통사적 속성의 분석을 통해 확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합성명사가 가지는 통사적 속성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합성명사를 구와 구별하도록 해 주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4. 합성명사의 통사적 특성 — 합성명사와 구의 구분

합성명사는 구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만일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시적 합성명사는 합성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구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간적 범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할 것이다.<sup>37)</sup>

기존의 국어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우선 이익섭(1967)에서는 액센트, 연접, 음장 등의 음운론적인 특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작성이 떨어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으로는 통사적 속성들이 검토되었는데, 특히 구성요소들의 내적 비분리성을 많이 들어 왔다. 예컨대 서정수(1981)는 이를 내적 확장(internal expansion) 불가로 표현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 ㄱ은 구인데, 이 경우는 ‘그’와 같은 요소를 개입시킬 수 있는데 반해, ‘형의 집’을 뜻하는 ㄴ의 합성어 ‘큰집’에는 그 같은 요소가 끼어들지 못한다.

- (14) ㄱ. 큰 집 → 큰 그 집  
 ㄴ. 큰집 → \*큰 그 집

김창섭(2001)도 몇 가지 구분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A + B가 단어라면 A나 B가 독자적으로 어떤 통사론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

37) 김창섭(2005)에서는 ‘소구(小句)’라는 중간적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서 A에 가외의 문법 요소가 결합한다든가, A, B 중의 하나라도 외부 요소의 수식을 받는다면, 외부 요소와 대등하게 접속된다든가, 생략된다든가, 대명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A + B'는 구로 판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음의 예들을 판정해 보면 괄호 안에 쓴 것처럼 될 것이다.

- (15) 흥 [길동, 길수] 형제가 ... ('흥길동': 구)
- (16) [국내 및 국제] 대회 ('국제 대회': 구)
- (17) \*쌀의 밥, \*[우리나라 쌀] 밥, \*쌀 [밥과 죽] ('쌀밥': 합성 명사)

#### 4.1. 멜축의 기준들

이 문제에 대해 멜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18)

1. 의미적 응집력(cohésion sémantique)

합성어는 의미적으로 통합되는(특히 통시적 합성어는 숙어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구는 각 요소가 모두 투명하다

2. 음성학적 응집력(cohésion phonétique)

합성어는 음성학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한다. 예컨대 하나의 액센트를 지닌다. 반면에 구는 여러 액센트를 지닌다.

3. 통사적 응집력(cohésion syntaxique)

a. 합성어는 조음적 섬(ilot anaphorique)이다. (어떤 공시적 합성어의 구성성분도 대명사적 조음소로 대체될 수 없다) 반면에 구는 이것이 가능하다.

b. 구는 그 구성성분들 사이에 삽입, 구성성분간의 치환, 구성성분의 외적 수식, 형태론적 표지 등을 허용하지만, 합성어는 이들을 모두 불허한다. 즉 합성어는 통사적 섬(ilot syntaxique)이다.

4. 형태론적 응집력(cohésion morphologique)

구는 구성성분 각각의 굴절이 가능하지만, 합성어는 이를 불허한다. 즉 합성어는 형태론적 섬(ilot morphologique)이다.

(M4: 106)

이들 기준은 원칙적으로 한국어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기준 1은 종종 모호하고 기준 2는 한국어의 경우 액센트 대신 음성적 휴지 등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매우 모호하다. 기준 3a와 3b는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교적 조작성이 있는 기준인 것으로 보이고, 기준 4는 합성용언에는 잘 적용되지만 합성명사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어 명사는 굴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4.2. 한국어에의 적용

아무튼 이상의 모든 종류의 테스트를 할 경우 앞에 제시한 우리의 모든 예들은 합성어적 반응을 보인다. 특히 기준 3b 통사론적 섬 확인 테스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3a 조음적 섬 테스트를 적용해 보자. 테스트를 해 보면, 과연 다음에서 보듯이 모든 유형의 합성어들이 그 어떤 구성성분도 대명사적 조음소 ‘그것’, ‘그곳’, ‘거기’, ‘그’, ‘그들’ 등에 의한 교체를 허용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1")

- ㄱ. 조기 퇴직 → \*그것 퇴직
- ㄴ. 흡혈 동물 → \*그것 동물
- ㄷ. 관리 철저 → \*그것 철저
- ㄹ. 복제 인간 → \*그것 인간
- ㅁ. 담당 연구원의 외국 치료 사례 조사 분석 → \*담당 연구원의 그곳 치료 사례 분석, \*담당 연구원의 외국 그것 사례 분석, \*담당 연구원의 외국 치료 그것 분석, ...

(2")

- ㄱ. 설탕공장 → \*그것 공장

- ㄴ. 생선가게 → \*그것 가게
- ㄷ. 빵집 → \*그것 집
- ㄹ. 사과나무 → \*그것 나무
- ㅁ. 간이 화장실 → \*그것 화장실
- ㅂ. 가죽옷 → \*그것 옷
- ㅅ. 법정 관리 → \*그것 관리
- ㅇ. 공놀이 → \*그것 놀이

(4'')

- ㄱ. 벼락부자 → \*그것부자
- ㄴ. 복부인 → \*그것부인
- ㄷ. 윗사람 → \*그곳사람, \*그것사람
- ㄹ. 몸집 → \*몸 그것
- ㅁ. 큰아버지 → \*그것 아버지, \*아버지 그것

(3), (5), (6)의 테스트는 너무 자명하여 생략한다.

반면에 구 구성성분은 이를 허용한다.

(1''') ㄴ. 그의 외국 치료 사례 조사 분석

다음의 구성도 조응소 테스트 결과 구로 판단된다.

(19) 대통령의 지방 방문

→ 그의 지방 방문, 대통령의 그곳 방문

(그곳+거기) 방문은 급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렇게 합성어가 조응소의 섬을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멜축이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합성어 내에서 수식기능을 하는 어근은 비지

시적(non référentiel)으로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만일 화자가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건 등을 지시하려고 한다면 합성명사가 아니라 구를 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벨축의 이 논리가 맞다면, 아마도 수식기능을 하는 어근은 한정사 ‘그’, ‘이’, ‘저’도 불허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예컨대 ‘면담’은 (20)ㄱ.과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데, (20)ㄴ.에서와 같은 합성명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본다.

(20) ㄱ. X-가 Y-와 Z-에 대해 면담하다

ㄴ. 면담 : 학생 ~, 학부모 ~, 교수 ~, 사장 ~, 집행부 ~

과연 이 때 논항기능을 하는 어근은 ‘그’에 의한 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21') 면담 : \*그 학생 ~, \*그 학부모 ~, \*그 교수 ~, \*그 사장 ~, \*그 집행부 ~

반면에 구구성은 이를 허용함을 볼 수 있다.

(22'') 면담: 그 학생과의 ~, 그 학부모와의 ~, 그 교수와의 ~, 그 사장의 ~, 그 집행부와의 ~

술어명사 ‘상담’도 (23)ㄱ.과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데, 이로부터 (23)ㄴ.과 (23)ㄷ., (23)ㄹ.의 합성명사가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제1논항이 수식기능을 하는 (23)ㄷ.의 합성명사는 불가능하다.

(23) ㄱ. X-가 Y-에게 Z-에 대해 상담해준다

ㄴ. X-의 Y ~: 교수의 학생 ~, 교사의 학부모 ~, 사장의 사원 ~

ㄷ. \*X ~ : \*교수 ~, \*교사 ~, \*사장~

ㄹ. Y ~ : 학생 ~, 학부모 ~



ㄹ. Z ~: 인생 ~, 결혼 ~, 진학 ~, 건강 ~

이 때 역시 논항기능을 하는 어근은 ‘그’에 의한 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 (23') ㄴ. X-의 Y ~: ??교수의 그 학생 ~, ??교사의 그 학부모 ~, ??  
사장의 그 사원 ~  
ㄷ. Y ~: ??그 학생 ~, ??그 학부모 ~  
ㄹ. Z ~: \*그 인생 ~, \*그 결혼 ~, \*그 진학 ~, \*그 건강 ~

이에 반해 구 구성성분은 ‘그’에 의한 한정을 허용한다.

- (23'') ㄴ. X-의 Y ~: 그 교수의 학생 ~, 그 교사의 학부모 ~, 그 사장  
의 사원 ~  
(24) 대통령의 지방 방문 → 대통령의 그 지방 방문

다음 (25)ㄱ.의 앞 요소는 조응소 테스트에 부정적이다. 반면에 ㄴ.과 ㄷ.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ㄱ.구성은 합성명사, ㄴ.과 ㄷ.구성은 구 구성으로 판단된다.

- (25) ㄱ. 나무집: \*그것 집  
ㄴ. 서울 집: 그곳 집  
ㄷ. 친구 집: 그의 집, 그 사람(의) 집

다음 (26)ㄱ.과 (27)ㄱ.의 구성도 조응소를 받아들이므로 구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다 선행성분 뒤에 ‘들’, ‘님’의 요소도 부착될 수 있으므로 더욱 분명해진다.

- (26) ㄱ. 아이 방: 그의 방  
ㄴ. 아이들 방

- (27) 가. 형 방: 그의 방  
나. 형들 방  
다. 형님 방

결론적으로, 합성명사는 통사적 응집력을 가지며, 이것이 합성명사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통사적 응집력은 기간 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된 통사론적 섬 확인 테스트 외에 특히 조용적 섬 확인 테스트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합성어 내에서 수식기능을 하는 어근은 비지시적으로 쓰인다는 멜축의 가설로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진단법, 즉 수식기능을 하는 어근에 대한 한정사 허용 불가능성도 유추해 보았다.

## 5. 맺음말

합성이란, 하나의 동일한 어간 안에 둘 이상의 어근을 연합하는 조작을 말하며, 합성명사란 그 조작의 결과 명사 범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합성명사는, 발화 시 화자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시적 합성명사와 통시적 합성명사로 나뉠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다시 의미조합 방식을 검토한 결과, 통시적 합성명사는 완전비합성과 준합성, 반합성, 그리고 완전합성의 방식을 모두 이용하는 반면, 공시적 합성명사는 완전합성과 준합성의 방식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말 합성명사의 생성원리라 할 수 있다. 일견 공시적 합성명사는 (완전)합성적으로 구성되고, 통시적 합성명사는 비합성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공시적 합성명사에 준합성적 합성명사 부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통시적 합성명사에도 완전합성적 의미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명사 부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한편, 의미조합 방식을 분석함에 있어 '조기 퇴직' 류의 표현을 완전합성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준합성으로 봐야 하는지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되

는데, 이는 멜축의 의미론적 의미와 통사론적 의미의 대립개념에 의거하면, 완전합성으로 분석된다.

합성명사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의미조합의 양상은 합성명사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아니라 통사적 구성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의미조합의 방식만으로는 합성명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합성명사의 정체성을 통사적 속성들에서 찾는 시도가 필요한데, 기간 연구에서 제안된 통사적 속성들에 더해, 멜축이 제시하는 조응적 섬 기준이 우리말에도 잘 적용됨을 볼 수 있고, 아울러 멜축의 가설로부터 유추한 한정사 제약도 유효한 기준임을 우리는 제시하였다.

합성명사의 사전 등재 문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론적 어휘부라면 화자에 의한 구성가능성이 없는 통시적 합성어만 등재소(listème)가 되고, 공시적 합성어는 규칙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MST에서도 공시적 합성어는 형태론적 모델의 형식적 규칙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통시적 합성어만 DEC의 항목 내에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기엔 기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합성어의 사용빈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적 합성어들 가운데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것들은 단일어처럼 기억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시간적 환경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복제 인간’, ‘복제 세포’ 등처럼 최근의 시사적인 용어들은 기억되어 있을 것인 반면에 과거의 것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언어사전이라면 어떠한가? 여기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이론적 어휘부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거기에 해당 합성어의 관습화 정도와 그 사용빈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는 사전의 유형, 목적, 규모 등의 변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 「이현희 교주(1986)」,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창섭(1997), 「합성법의 변화」, 『국어사 연구』, 태학사.
- 김창섭(1998), 「복합어」,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 김창섭(2001), 「합성어」,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연구원.
- 김창섭(2005), 「한국어 합성어 연구의 최근 쟁점」, 『한국어 합성어 연구의 최근 쟁점 워크숍 자료집』, 서울대인문학연구원언어연구소,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 목정수(2003), 『한국어문법론』, 월인.
- 박만규(2003),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의미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6., pp. 307-353.
- 박만규(2005), 「합성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한국어 합성어 연구의 최근 쟁점 워크숍 자료집』, 서울대인문학연구원언어연구소,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 박홍근(1981), 「국어 복합어 설정의 기준 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제173.174호(60돌 기념 특집1).
- 성광수(1988), 「합성어 구성에 대한 검토-국어 어휘 구조와 어형성 규칙(2)」, 『한글』 제201.202호, 한글학회.
- 송철의(1990),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 총서 18, 국어학회, 태학사.
- 송하진(1991), 「국어 복합동사의 어휘론적 특성」, 『김영배 선생 회갑기념논총』, 경운출판사.

- 시정곤(1990), 「국어의 단어 형성에 관한 관견 — 복합과 파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신연구』, 한신문화사.
-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집문당.
- 양영희(1994), 「합성어의 하위 분류」, 『한국언어문학』 제33집, 한국언어문학회.
- 이석주(1989), 「국어 어구성 연구 — 복합어와 파생어의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석주(1987), 「의미론적 접근에 의한 국어복합어와 구의 변별기준」, 『한성대 논문집』 제 11집.
- 이재인(1991), 「국어 복합명사 구성의 이해」, 『김완진 선생 회갑 기념논총』.
- 이희승(1977),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최현배(198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국어학총서 45, 국어학회.
- Everaert, M. E. et als. (eds.)(1995), *Idioms: Struc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Hillsdale, New Jersey / Hove, U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el'čuk, I.(1995), Phrasemes in Language and Phraseology in Linguistics, in Everaert et al.(eds), 167-232.
- Mel'čuk, I.(1993) [M1], *Cours de morphologie générale, volume 1, Introduction et Première Partie: le mot*, Les presse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CNRS Editions.
- Mel'čuk, I.(1994) [M2], *Cours de morphologie générale, volume 2, Deuxième Partie: Singnifications morphologiques*, Les presse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CNRS Editions.
- Mel'čuk, I.(1996) [M3], *Cours de morphologie générale, volume 3, Troisième Partie: Moyens morphologiques et Quatrième Parite: Syntactiques morphologiques*, Les presse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CNRS Editions.
- Mel'čuk, I.(1997) [M4], *Cours de morphologie générale, volume 4, Cinquième*

*Partie: Signes morphologiques*, Les presse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CNRS Editions.

Mel'čuk, I.(2000) [M5], *Cours de morphologie générale, volume 5, Sixième Partie: Mod les morphologiques et Septième Partie: Principes de la description morphologique*, Les presse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CNRS Editions.

Mel'čuk, I. A.(1989), Semantic Primitives from the Viewpoint of the Meaning-Text Linguistic Theory, *Quaderni di semantica* 10:1.

Mel'čuk, I.(1988), Semantic Description of Lexical Units in an Explanatory Combinatorial Dictionary: Basic Principles and Heuristic Cri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1/3, 165-188.

Mel'čuk, I. et al.(1984/1988/1993),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 II, III*,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Montréal, Montréal.

Mel'čuk, I. A., Clas, A. & Polguère, A.(1995),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explicative et combinatoire*, Editions Duculot.

원고 접수일: 2006년 00월 00일

게재 결정일: 2006년 00월 00일

**ABSTRACT**

---

Pour établir l'identité de la notion de noms composés  
– du point de vue de la morphologie de Mel'čuk

Man-Ghyu PAK (Université Ajou)

Le présent article traite de la distinction entre les composés et les syntagmes, un des sujets les plus délicats des mots construits. Notre objectif est de trouver les bonnes réponses aux questions suivantes :

- 1) Le sens d'une expression complexe doit-il être opaque pour qu'elle puisse être appelée 'un nom composé' ?
- 2) Si une forme avec un sens transparent (ou compositionnel) peut être classifiée parmi les noms composés, quel sera sa définition ?
- 3) Le nom composé ne doit-il pas être productif ? Ne peut-on pas accepter comme noms composés les formes qui sont librement formées par le locuteur dans le processus de parole ?
- 4) Si on les considère comme noms composés, quels seront les critères qui les distinguent des syntagmes, i.e. constitutions syntaxiques ?
- 5) Les composés sont-ils tous des listèmes ? Si certains le sont, lesquels peuvent l'être et quel en est le fondement ?

Pour y répondre, nous nous appuyons sur des notions morphologiques de I. Melčuk, telles que la composition et l'opposition entre composés au sens fort et composés au sens faibles, ainsi que la compositionnalité.